

###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믿음과 정진

요즘 시민들은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사회의 혼란에서 오는 실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때는 황소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것이 최상이다.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만큼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집어함경>제22에 나오는 계승에 이런 찬송이 있다. "믿음은 모든 시내를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게 하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 맑고 깨끗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시내는 윤회를 의미하며, 바다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진이란 부단한 수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믿음을 바탕으로 무상, 고, 무아를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다. 따라서 수행은 법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을 <집어함경>제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만하지 않은 것이 감로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 교만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니/ 교만이란 곧 수행자의 죽음이다."

과 죽지 않음은 하나의 단어로 표기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중아함경>에 나오는 계승에선 죽지 않는 것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교만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길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게 되기 때문이다. 정진 즉 부단한 수행을 통해 열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찬송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성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유용하고 사실적인 직접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 교리들에 찬성하는 것이다. 지성이 믿음의 문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초월해야 한다. 사실적인 것들을 초월하지만 믿는 자는 믿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로서 기꺼이 그의 지성의 틀을 깨뜨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성적인 태도 때문에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주로 의심과 당혹감이다.

불교에서 믿음은 단지 예비적 즉 임시적인 단계로 간주한다. 믿는 사이에 직접 발생하게 되는 정신적인 자각이며, 알고자 했던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적 믿음은 정진이라는 이름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의 덕이 사물의 진실한 본성에 대해 강한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 자기완성위해 함께 구르는 두바퀴

### 균형감각 유지하며 실천 뒤따라야

교만이란 믿음이 결여된 상태요,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교만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교만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적이다. 아직 정제되지 않은 마음이며, 탐욕과 분노가 서려 있는 마음이다. 남을 능멸하며, 남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며, 남과의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마음이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 연민도 없다. 남을 포용할 줄 모르며,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진뿐이다. 이 경우 정진이란 법답게 수행하는 것이며,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교만한 마음이 세련된 마음으로 바뀌며,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되며,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게 된다. 자비와 인욕과 포용은 여기서 가능해 진다. 그렇기에 '교만하지 않음이 감로의 길'이라 가르친 것이다. 감로란 단 이슬이란 의미이지만 이것은 범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감로를 의미하는 범어는 죽지 않는다는 의미(不死)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단 이슬

믿음이 없으면 정신적인 통찰이라는 식물이 싹을 틔울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씨앗에 비유한다. 요즘과 같은 회의적이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신앙이 지니고 있는 지성적인 면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믿음이든 신앙이든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지성 보다는 마음에 더 욱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믿음이란 '주어진 관념에 마음의 힘을 집중하여 자기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덕은 자기수련에 의해 강화되고 증진되는 것이지만 각자가 지닌 신념을 토 문해서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감한 결단력이 자기 확신의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호하기 보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정진은 각각 따로 굴러가는 바퀴가 아니라 상호의존 속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불교적 가치가 너무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가르침이며, 반면에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정진에 근거한 우리들의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 마음 몸·생명보다 더 소중



지상 백고좌

## 각성 스님

(삼일선원장)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상식과 지식이 너무도 많지만, 무엇보다 근본 핵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생존경쟁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이 없다면 일확천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일신이 천금 만큼'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이 있어야 즐거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걸음 더 들어가 근본을 따져본다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나무토막이나 송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근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몸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과 생명보다 근본이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불성(佛性), 각성(覺性), 본심(本心), 여래장(如來藏) 등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자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해서 어리석은 상태가 곧 중생입니다.

그러면 부처와 중생이 본래 무엇에 의해서 생겼느냐.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마음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착한 것, 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두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헛갈리기 쉽습니다. 착한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고 악한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본래 순수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때 묻지 않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곧 양심이라는 것이지요.

현대의 물질 만능 시대에 먹고 입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다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근본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것은 넉넉하지만 많은 불상사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

#### 기자가 본 각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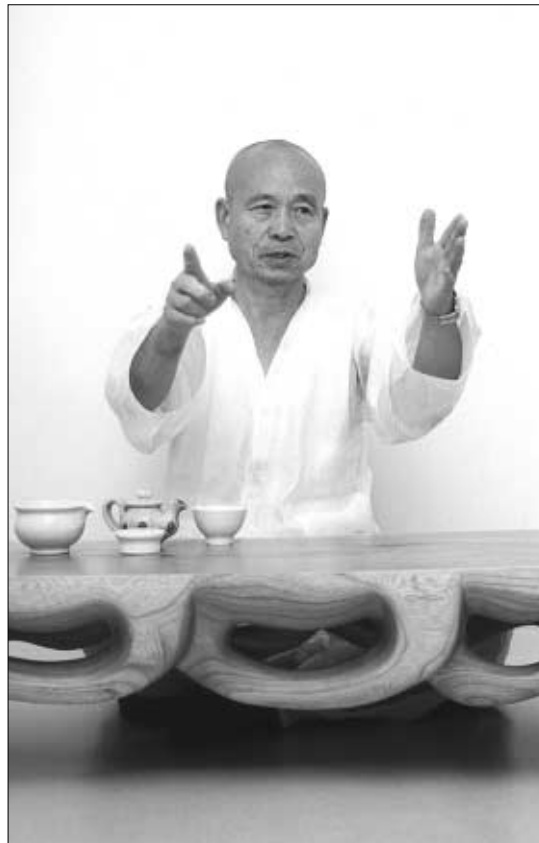
출가 후 40여 년 동안 영경과 강, 후학양성에 힘써 온 '이 시대의 대강백', 원조 각성(圓照 覺性) 스님. 수많은 저서와 강의로 이름 높은 스님이지만, 법문이나 강의를 하실 때는 그 흔한 메모지 한 장 손에 쥐지 않는다. '항상 책을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 저절로 정리가 돼 인제는 필요할 때 꺼낼 줄 수 있다'는 스님은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책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후학들이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지난 1998년 펴낸 <원조각성화상 회갑기념논> 제3집 <중용지지>에 실린 '인후감(仰後感)'을 통해 스님의 이력을 살펴보면, 스님은 1938년 전남 장성의 한화사 집안에서 태어나 8살 때부터 조

부에게 한학을 배웠다. 1954년 <5천년 조선역사>란 책에서 출국 이이 선생이 짙에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내용을 읽고 백양사를 찾아갔으며, 당시 종정이던 만암 스님을 뵈고 출가 허락을 얻었다. 55년 18세의 나이로 해인사 백련암의 도원 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58년 해인사 전

#### '통화총서' 등 저서 20여권...대표적 강백

부산 화엄사에 전강원을 개설해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스님은 서울 보명선원에서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능엄경> 강의를 하고 있으며, 10월 7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부산 화엄회관에서 <인각경> <금강경요해>를 강의할 예정이다



40여년간 영경과 강의, 후학양성에 매진해 온 각성스님은 "물질에 이끌리지 말고 자신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다. 노이로제와 신경쇠약, 불안, 공포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자살합니다. 못 먹고 못살아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

### 불가도인술 전수 수행자 모집

가. 달마 침구술 정체술기 및 교체법 운기 도인술 불교전래 향공법 전수자 근거에 따라 다양한 술기전수 난치병 불치질환에 특히 적용, 오래된 만성두통특효 귀신병등 병의로 고통받는자 즉시 회복 (천도방법전수)

※ 한가지 술기만으로도 명이가 될 수 있는 기회

나. 수행자격 : 신심있는 모든 청신사 청신녀 동참금 : 속성 1개월 과정 10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2061-52-052323 국민은행 629-21-0293-427 예금주 : 조진

여래사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수행하며 노후를 위탁하실 불자님들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연령 50~60세 전후로 신심있는 불자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아래 여래사 주지 심묵 법장 합장 (011-245-5467)

###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범에 따라 도움수 있음)

- 조상신과 중생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적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등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침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생심도 단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적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오든 병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형으로 잠 못 이루는 분
- 병마다 가워늘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불매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 고혈압·순환기질환

정당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칼관속에 만점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막화시키고, 각종 질병(상인병)을 유발시킴.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병성망막배체증, 손발절림,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요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 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약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프레드,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연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소리산 참선캠프 범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개원기념 수행 교육 안내

- 매주 목요일** : 수행 지도자를 위한 수행법 교육
- 수행내용**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부처님 호흡법 자동 단전 호흡법 염불禪, 행선, 외선, 참선, 위빠사나 업장소멸 진참회 도인체조 건강법 부처님 감사 수행의 핵심 테크닉 교육
- 시 간** : 낮반 (1시~3시), 저녁 직장인반 (저녁 7:30~9:30)
- 대상** : 누구나 ▶회비 : 월 3만원
- 매주 월, 화, 수 (저녁 : 7:30 ~ 9:30)** : 108배, 외선, 도인체조 건강 법회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 : 월, 화, 수, 목 (오전 10시 ~ 12시 : 7명 이상 예약)
- 키운슬링 상담** : 수행을 통한 맑은 의식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을, 병고 액난의 예고를 제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위치** :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앞 50M 이망사 기구 4층
- 상담전화** : (02)456-4994, 0035 (F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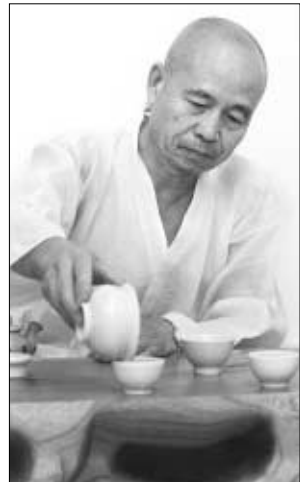


◇지난 9월6일 불교TV 무상사에서 열린 '근심법'에는 각성 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20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들었다.

조리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을 몰라서 빚어진 일들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거나 알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순수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개발해서 깨우친다면 자살을 한다거나, 자신을 잃고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품과 잡초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뿌리를 찾는 것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요즘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제사도 지내지 않거나 휴가지에 가서 날이 만든 음식으로 대충 지내는 일도 많은데, 이런 것도 자신의 뿌리, 즉 근본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도 찾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윤리나 도덕이 퇴색할수록 법률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근본이 아니라 말단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인관계나 단체생활, 기업, 정부 등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도 근본을 제대로 발휘 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밝히고, 자신의 불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각성스님.

### 순수한 양심이 인간의 근본 계·정·혜로 그자리 찾아야

마음을 보려면 사무쳐야 합니다. 본래의 마음을 찾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에 현혹되고, 물질만 가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은 추구하다보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원각경>에 보면 '내 마음이 청정하므로 우주법계가 다 청정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지식을 쌓고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봐야 하겠죠? 하지만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는 마음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차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고칠지? 달리는 차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선 주차를 시켜놓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떤 부속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고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시킨 다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定)'의 가르침입니다.

'혜(慧)'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병을 알고 그에 맞는 약을 쓰는 지혜를 말합니다. 차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바로 '혜'입니다. '정'을 바로 닦음으로써 이 '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병을 제대로 고치고 인간의 근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제정해 삼학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선정의 수행을 할 수 없고, 선정의 닦음없이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곧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항상 열심히 정진하시어서 자신의 근본인 마음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어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법 석

다. 부모와 조상을 잘 받드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양심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남을 속이려는 마음 가짐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살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삼학은 불교 수행의 기본으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계'라고 하니가 무척 어려운 것 같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의 근본정신을 알고 양심대로 살면 됩니다. '불살생계'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는 자신의 양심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은 죽이고 죽이고 살면서 방생을 한답시고 마구라지나 거북이를 살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못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근본도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불이 아무리 밝아도 썬다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자리가 원래 밝고 청정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부처님처럼 보리반야의 밝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밝히고 자기의 본성, 순수한 양심자리를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자리는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형태가 없으니 볼 수 없다. 자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에 비춰봐야 하듯이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사무치면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수양을 통해 마음을 밝게 해 잡념이 사라진 상태일 때, 불생 불멸의 본래 마음자리가 밝아질 때 마음이 사무치는 것입니다. 이를 견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은 밝은 거울에 비춰야 볼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보려면 사무쳐야 합니다. 본래의 마음을 찾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에 현혹되고, 물질만 가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은 추구하다보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원각경>에 보면 '내 마음이 청정하므로 우주법계가 다 청정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지식을 쌓고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봐야 하겠죠? 하지만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는 마음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차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고칠지? 달리는 차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선 주차를 시켜놓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떤 부속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고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시킨 다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定)'의 가르침입니다.

'혜(慧)'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병을 알고 그에 맞는 약을 쓰는 지혜를 말합니다. 차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바로 '혜'입니다. '정'을 바로 닦음으로써 이 '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병을 제대로 고치고 인간의 근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제정해 삼학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선정의 수행을 할 수 없고, 선정의 닦음없이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곧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항상 열심히 정진하시어서 자신의 근본인 마음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어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일중 스님

수행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그루 든든한 소나무 같은 수행자도 있고 풀썩에 향기를 감추고 사는 야생화 같은 스님도 있다. 강원에서 4년을 함께한 도반 일중 스님을 생각하면 큰 파도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느낌이 든다.

일중 스님은 지금 부처님의 나라 인도 델리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다. 아마도 어느 한 생애는 남방 어느 나라의 수행자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쪽에서 오래도록 공부하고 있는 도반이다. 강원을 졸업하기 전 몇몇 도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 고린도 많았다. 강원 교육과정에 관한 것부터 사원경제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을 염려해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을 모색했던 일들이며, 앞으로 우리 불교가 지양해야 할 방향까지 종단의 모든 것을 짚어준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토론하곤 했다.

일중 스님은 남달리 원전을 번역하는 일에 마

하기도 전에 오후 입선을 마치고 전 대중이 눈발으로 땀이 캐는 율력을 나가곤 했다. 그날도 땀이 율력이 있는 날이었다. 도반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호미와 붓지를 하나씩 챙겨 들고 가까운 밭으로 땀을 캐러갔다. 일중 스님과 땀을 캐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일을 하나 도모하기로 했다. 스님은 글재주도 있고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를 가졌다. 그래서 밭이던 일이기도 했다.

땀을 캐다 문득 일중 스님이 "진명 스님! 내가 겨울 방학이 하도 길어서 테이프에 부처님 말씀을 녹음해 봤는데 한 번 들어볼래요?" 라고 말했다. 땀이 캐는 것은 밭전이고 밭에 주저앉아 윗반 스님들 눈치를 살피며 작은 녹음기에 담긴 테이프를 듣는데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정식으로 스튜디오를 빌려서 테이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맞추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마다 산책길에 그 테이프를 들곤 했다. 물론 결론은 한가지였다. 아마 삼발목욕일이 수업도 없고 입선을 쉬는 날이었을 것이다. 들어서 따로 따로 외출 허락을 받아 대구로 향했다. 미리 압암리에 스튜디오를 물색해 놓은 다음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그런 일에 투회한 두



음을 두었다. 그래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를 공부해서 원시경전을 번역하고 싶어했다. 그 원을 따라 강원을 졸업하고 일년 남짓 후에 스리랑카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약 9년을 스리랑카에 머물며 켈리아 대학에 적을 두고 불교철학을 공부하며 틈틈이 그곳 수행처를 찾아 남방수행법에 따라 정진하는 것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고 규묘는 작지만 한국 교민 불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해서 틈틈이 한국 사찰 보현정사를 마련해 불자들의 수행과 기도생활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다.

세운 일에 대한 모험심이나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어느 것 하나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저 도반이라는 사실 밖에는 말이다. 스님을 생각하면 강원 시절에 의기투합해서 다른 대중들 틈새 작은 일을 꾸민 것이 생각난다. 운문사는 봄이 되면 대중들에게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것이 공양시간이다. 재 땅이 해동

### 용돈털어 불경테이프 제작·보시

### 원전번역 서원...스리랑카서 유학

스님이 참 무모하게 일을 시작했다. 녹음실에서 몇 시간 심혈을 기울인 끝에 무사히 60분짜리 테이프에 녹음을 마치고 돌아왔다. 테이프 자켓을 아는 불자한테 의뢰하고 두 사람의 용돈을 털어 보시용 비매품으로 테이프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처님 말씀 한구절 한구절을 진지하게 읽어나가는 일중 스님을 보며 앞으로 견고한 그 의지로 어느 것 한가지는 꼭 이룰 수 있는 도반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여름 델리의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 히말라야 산 근처로 떠나며 보내왔던 엽서들이 도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진명 스님!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8시간을 산속으로 와서 꼬박 이틀을 걸어 히말라야 품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심공파, 포사인르프라는 산정호수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문명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나무 장작으로 수제비를 해먹고, 지금은 너무 추워서 방안에 있지 못하고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피고 있습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반달은 은빛으로 빛나고 숲은 고요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충실하고 길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산이 좋습니다. 산을 사랑합니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음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 영험량

픽마승 예린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일 생활아메,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동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열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강 속에는 이끼처럼 속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에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딱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만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지만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연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쳐 쓰러져버린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소개

사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교재와 선생을 만나기가 어려울뿐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면, 여러분도 빠른 시일 내에 사주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사주학의 근본원리부터 고급 추명비결에 이르기까지 사주학의 핵심 이론들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애매한 사주의 용신을 확실하게 짚을 수 있는 **비결 수록**
- 사주구조의 **종교나쁨을** 판별할 수 있는 **비결 수록**
- **육친분석 및 대·세운 해석 통론** 수록
-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각종 중요 비결** 수록

◆ 저자: 오산 정대균  
◆ 책규격: A-4용지 620쪽  
◆ 가격: 스님, 법사님들에게는 우대가격 적용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함.  
◆ 구입방법: 하기 계좌로 송금하신후 전화로 주문을 알려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자세한 서적소개에 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 참조.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정대균

※ 수강생도 수시 모집 함  
[www.sazoopalza.com](http://www.sazoopalza.com)

###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H·P 011-208-0051